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거쳐 빨리 결론”

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들
예산정책협의 갖고 현안 논의
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전제
시·도 논의과정 순탄치 않을 듯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록 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지역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문제는 지역 민심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시도 통합 문제가 상생보다는 소모성 이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 통합 문제는 전반이 엇갈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잘못 접근하다가는 상생보다는 소모성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광주 인구에 있는 지자체는 찬성 의견이 강할 것이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도 행정 통합 문제는 시도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조속하게 수렴, 적어도 올해 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백운고가 상판 구조물 철거 완료 23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의 마지막 남은 상부 구조물이 철거됐다. 광주도시철도본부건설분부는 다음 달부터 우벽 등 잔재를 해체작업에 돌입, 어는 11월까지 철거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1989년 11월 길이 385.8m, 폭 15.5m로 개통된 백운고가차도는 백운동부터 주월동까지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 행정 통합을 논의할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 통합 문제는 지자체는 물론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윤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위원장이 함께 하는 4자 연속 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영록 지사도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각계 각층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행정 통합의 밑거름을 그려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단순한 행정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준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진정한 지방 분권의 여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행정 통합의 명분에는 찬성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올해 내내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윤섭 광주시장의 제기한 행정 통합의 이슈에 김 지사가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통합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논란만 이어지는 소모성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

“60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불균형 호남권 인구·경제 규모 축소 원인”

광주·전남이 상생 협력해
정부에 혁신성장 지원 요구를

과거 60여년간 이어져 온 정부 재정 투입 불균형이 호남권의 인구·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 경제 지표 등이 현저한 지역에 대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타 지역과 동등한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해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처지는 호남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책, 사업들을 마련해 시·도, 시·도 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지역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병기 책임연구원은 ‘역사적 재정 불균형 개선 위한 차등적 재정분권 정책 추진 방향’에서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3201조원의 지방재정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6.8%(1179조원), 27.7%(885조원)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15.7%(502조원)에 그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정부의 재정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재정 분권 1단계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종일 초빙연구원은 ‘광주·전남 상생협력 담양성과 과제’를 통해 위기의 광주·전남을 진단하고, 광주·전남공공기관 유치협의회 구성·운영,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상생발전기 확대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소 500만 이상의 인구 보유 필요, 지역 간 경쟁을 벗어나 광역 연계 협력, 경제·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입 등을 위해 상생협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광주·전남이 인구 팽창기, 정체기를 거쳐 2050년부터 수축기에 진입하면 연평균 40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처방을 통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록 전남대교수, 박병희 순천대교수, 김광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종합 토론회를 벌였다.

이정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특히 호남권은 더 어려운 지경이다”며 “이는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략적인 대책이 없는 한 청년 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음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총장 후보 1순위에 정성택 교수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선거에서 정성택 의대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됐다. 2순위 후보자는 김영만 공대 교수였다.

23일 전남대에 따르면 총장선거는 이

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후 7시 결선투표를 진행, 정성택 후보가 704표로 1순위 후보자로 결정됐다.



42표차로 따돌리고 1위 후보가 됐다.

전남대는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두 명 중 한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이번 선거는 2012년 학칙 개정 이후 8년 만의 직선제이다. 1988년 교수회 주도로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12년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뒤, 8년만에 다시 직선제로 선거를 치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에 화물차 불법주차 기승 ▶6면



광주 동성고 6명 KBO리그로 간다 ▶18면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3만원 이상



프레시업 베이직
32,900원
(카드할인 3,000원, 3+1)



저자극 더마 헤어&바디기프트
36,900원
(5+1)



도담36호
36,900원
(10+1)



도담45호
45,900원
(10+1)



러 친삼화
45,900원 (5+1)



사랑행복두베세트
49,900원 (5+1)

•3만원 이하



도담21호
21,900원
(카드할인 4,000원, 5+1)



라벤더 1+1 바디세트
28,900원



로즈에디션 1+1 세트
28,900원



도담29호
29,400원
(카드할인 5,000원, 5+1)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9/16~10/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